



농수산부, 현행 농협·수협기구 대폭 개편 계획

대 농어민 봉사활동 강화와 자립 향상에 주력

— 축산관계조합과 축산진흥회 통합 계획 —

농수산부는 현행 농수협기구를 대폭개편, 농협의 군조합관장업무를 단위조합에 이양하고 수협의 군단위 조합을 경제권, 생활권별로 통폐합, 기능을 단일화하여 어촌계를 적극 육성하는등 대농어민 봉사활동강화 및 자립도 향상에 주력할 방침이다.

농수산부는 현행의 농수협기구가 기능별로 방대해짐에따라 농협의 경우 1백40개 군조합업무와 1천 4백88개 단협의 업무가 중복될뿐만 아니라 각종영농자금융자·판매·구매사업에대한 2종 수수료부과로 인해 효율적인 대농어민봉사 활동을 펴지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 앞으로는 군조합이 관장해온 영농관계업무를 단협에 일괄 이양하고 군조합은 중앙회직속 순수 농업금융업무만 취급도록 할 계획이다.

또 군조합수준의 1백 개 축산관계 조합을

현재의 축산진흥회와 통합, 흡수시켜 체계적인 축산진흥 시책도 펴나갈 방침이다.

농수산부는 또 수협중앙회 산하 86개 군조합을 앞으로는 행정구역이 다르더라도 동일한 경제권 생활권안에 양립된 군 조합을 통폐합, 체계적인 어민봉사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1천 4백39개 어촌계를 모두 법인어촌계로 육성, 자립도를 높여 대어민 신용사업을 펴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한편 농협중앙회의 1천 4백88개 단협중 자립단협은 금년말까지 6백50개정도에 달할 것으로 추정돼 전체의 자립도는 약 50%에 이를 전망이며 농협의 단협에 해당하는 1천 4백39개 수협산하 어촌계중 겨우 46개소만 법인어촌계로 등록, 신용사업등을 실시하고 있어 앞으로 농수협기구개편에 따른 일선단협의 기능보강이 시급한 실정이다.

국제 농업 조정정책문제 세미나

— 9월 16일부터 서울서 개최 —



(김 보 현)

한국을 비롯한 신흥공업국들이 안고 있는 농업 조정문제를 집중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국제세미나가 9월 16일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김보현)과 서독 국제개발 재량 DSE 및 국제농업경제학회 IAAE의 공동주최로 여의도 전경련회관 회의실에서 5일간 계속된 이번 회의에는 한국을 포함한 서독, 미국, 일본, 대만의 농업경제학자 및 전문가 30여명이 참석, 13편의 주제 논문을 발표하고 광범위한 토의를 벌였다.

신흥농업국의 농업조정정책을 주제로 한 이번 세미나는 신흥공업국의 경제개발 정책에 있어 농업부문이 갖는 역할을 분석하고 대두된 문제점을 파헤쳐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는 국제농업경제학회 회장인 「태오도드. 담스」 박사(서독 트라이브크대학 교수)와 일본국제개발센터 IBC소장 「오가다 가즈시」 박사 등 국제적인 저명한 석학들이 많이 참석했다.

각 주제별 발표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한국경제성장에 대한농업의 기여 (金東熙 農經研부원장) 앞으로 농업의 점진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농토보전과 개량 영농인력개발 등 생산성 향상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또 앞으로의 세계경기가 불투명하고 수출신장이 둔화되는 점등으로 보아 국내 상품시장으로서 농촌이 중요시되어야 한다.

◇ 경제발전을 위한 농지제도의 개선방향 현재 우리농촌이 갖고 있는 농지 1정보 정도는 농산물을 싸고 안정되게 공급하기 어렵고 도·농 간격차도 벌어질 것이다.

이를위해 전업 자립농가의 수를 늘려 기계화를 도모해야하며 효율성이 낮은 영세농은 다른 산업으로 전직하도록 직업훈련을시키고 협동영농을 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 농산물가격과 국가무역정책 (許信行 農經研연구원) 농축산물무역은 국내부존자원의 활용과 고용기회의 부여 국내식품 수급 원활화등의 종합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과잉생산 때엔 정부가 수매, 수출을 장려해야 하며 과소생산 때는 부족분에 한해서만 수입해야 한다.

◇ 경제발전단계에 따른 농업의 역할 (테오도르·담스 국제농경학회회장) 개발국들의 성장 위주 경제정책은 개인간, 산업간 소득불균형을 초래, 절대 빈곤을 증대시키며 아울러 농업부문 기술의 정체, 도시에의 인구집중으로 식량안보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농업기술의 개발을 위한 공공 투자의 확대가 절실하다.

◇ 농지제도와 사회경제발전 (프리초프 쿠네 서독 피팅겐 대교수) 지난 50년에 확립된 한국의 농지 제도는 농지소유를 제한하고 임대차를 금지하는등 기업화의 길을 막고 있으므로 이를 허용하여 농지소유는 진정한 自耕者에, 임대차는 지방의 영세농에 한해서만 허용해야 한다.

이밖에 농경지의 비농업부문 전용을 막고 경지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

Newsletter 발간 100호

기념회 성료

— 세계곡물수급 및
가격전망 특별강연도 —



미국사료곡물협회 한국지부(지부장: 박영인)는 국내외 사료, 축산뉴우스를 월간 또는 격 월간으로 편집 지난 1973년 8월에 창간한 Newsletter지 발간 100호를 맞아 기념회와 특별강연을 지난 9월 19일 오후 2시 미국대사관 무역관에서 성황리에 개최했다.

박영인 지부장이 효율적인 생산기술 전달과 유통, 소비대책 강구를 위해 국내외의 선진된 자료를 국내 실정에 맞게 정리 편집하여 축산 발전을 위해 전축산인들에게 최신 정보를 전달하는 매개체 역할을 해온 동지는 그간 8개년 동안 낙후된 국내 축산업계가 팔목 할 만한 성장을 하는데 기여한 바가 매우 크다.

이날 기념회에는 1980/81년 세계곡물수급 및 가격전망에 대한 강연과 기념축하연이 함께 베풀어졌다. 본지는 특별 강연회 내용을 취재 본지 p.49에 게재하였다.

수원시 도축장 시험도축실시

수원시 도축장이 착공 5개월 만에 완공되어 지난 20일부터 시험도축에 들어갔다.

수원시 관내 정육업자들의 모임인 축산기업조합(조합장=최중호)이 1억 3천 2백 40만원의 예산을 들여 시내 오목천 등 788의 1의 3필지 1천 50평대지에 1백평의 도축장을 비롯 30평의 계류사를 확보 1일 1백t 처리규모의 폐수처리 시설등 현대식 규모의 도축장시설을 마련 시당국에 기부채납한 이도축장은 1일 소 50마리와 돼지 1백 50마리를 도살할 수 있다.

한국축산학회 학술발표회 및 정기총회 개최예정



(이재근 한국축산학회장)

한국축산학회(회장: 이재근)는 금년도 정기 학술발표회 및 정기총회를 오는 10월 11일(토) 오전 9시부터 수원시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농업교육관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학술발표회가, 오후 3시부터는 정기총회가 개최되는 이번 학술발표회에 회원 및 유관기관의 많은 참석을 희망하고 있다.

미국 양계산업 시찰단 구성

— 10월 18일 출국예정 —

본회와 미국사료곡물 협회는 우리나라 채란양계 업계의 안정된 발전을 기하고 생산성을 높이며 유통구조의 개선 등으로 소비자와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업계 중진들로 구성된 미국 채란업계 시찰단을 10월 18일 미국과 일본에 파견한다.

약 3주간의 예정으로 떠나는 이번 시찰단은 미국의 주요 산란계 지역과 사료 종류 가금 처리 판매등 계열생산 체제와 이의 경영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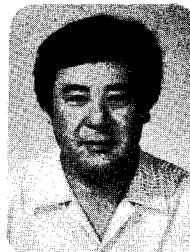
미국 농무성과 사료곡물 협회의 초청으로 떠나는 이번 시찰단의 명단은 아래와 같다.



(류종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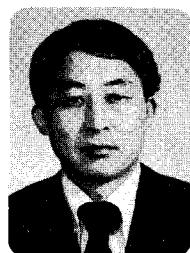
(김중경)



(이종춘)



(조동석)



(구능완)



(박영인)

단장 류종래 (대한양계협회 회장)

단원 김중경 (오경협 업농장 대표)

(본회 부산 경남 지부장)

단원 이종춘 (정원 농장 대표)

(본회 전남 지부장)

단원 조동석 (한일사료 기획부장)

단원 구능완 (농수산부 축산과 계장)

안내 박영인 (USFGC 한국지부장)

경기도 가축품평회 개최

— 수원시장서 9월 26일부터 2일간 —

경기도는 축산진흥의욕을 고취시키고 애축정신을 양양시킴과 우량가축을 선발 보급키 위해 지난 9월 26일과 27일에 수원시 광교정동 수원가축시장에서 가축 품평회를 개최하였다.

전국 가축품평회 출품을 위한 경기도 예선을 겸한 이번 품평회에는 한우 70두, 유우 30두, 돼지 20두 등이 출품되었는데 입상가축에게는 총 8백 53만원의 상금이 주어졌다.

영양사료연구회 특별세미나 개최 — 미, 유타주립대 Harris 박사 초빙 —

한국영양사료연구회(회장: 강면희)는 미국 대두협회 한국지사(지사장: 이경원)와 공동 주최로 제 5회 영양사료분야 특별세미나를 지난 9월 11일 무역회관 대강당에서 개최하였다.

한국사료향미양행과 현대양계가 후원한 본 세미나는 특별강사로 미국 유타주립대의 세계적인 영양학자 Lorin E. Harris 교수를 초빙 국제사료 정보센타(INFIC)의 소개와 특별강연이 있었다.

국제사료정보센타(INFIC)는 국제사료이름의 통일로 용어의 정리, 각사료의 화학적, 생물학적 성분 데이타정리,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유지하고, 사양가가 가장 경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며, 사료 사용자에게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모임으로 북미, 유럽, 아프리카등 세계에 그 기구를 갖고 있으며 최근 남미와 아랍 14개국의 사

료분석표와 동남아시아의 사료성분표를 작성 중에 있으며 가까운 시일내에 한국의 사료의 생물학적 측정치와 미량원소에 대한 사료분석표를 작성 할 예정에 있다고 소개했다.



이날 세미나는 컴퓨터에 의하지 않는 사료 배합모델(Harris), 소에 있어서 불소중독(D. A. Green wood 등) 대두박의 사료적 가치(장윤환), 난중과 난각의 질에 영향하는 인자(한인규, 송만강) 등의 영양사료 분야에 대한 강연이 있었다.

기술상담민원실 신설

— 축진, 양축농가 봉사활동 강화 —

축산진흥회는 양축농가에 대한 기술지원 등 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술상담 민원실 및 일반민원실을 신설, 운영키로 했다.

축진에 따르면 이번민원실 설치운영은 현

재 우리나라 양축농가의 대부분이 축산시설 부족, 자금난, 낙후한 기술문제등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양축농가의 당면과제 해소와 보호를 위한 것이다.

이번 신설된 축진민원실은 양축농가의 사양관리, 질병예방 및 퇴지는 물론 축사시설, 용차등 제반문제에 대해 자문해주고 현지출장등을 통해 무료로 적극적인 상담 및 지원을 하게된다.

콜레라 만연으로 우유소비량 격감

— 보사부 발표이후, 유업계 곤경 —

콜레라가 번지기 시작한 이후 우유소비량이 급격히 줄고 있다. 농수산부에 의하면 우유소비량이 30%나 줄어들었고 생선류는 서울반입이 60%나 줄고 소비자 가격도 20~45%까지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市乳는 콜레라가 발생하기 전엔 하루 평균 9 백 56t씩 소비되었으나 9월 21일 이후 27일까지 평균소비량은 7 백 22t으로 23%나 줄어들었다.

우유소비량이 이렇게 급격히 줄어든 것은 보사부가 우유를 콜레라 매개체로 발표하자 학교급식 및 가정에 배달 소비되던 것이 끊어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학교에서의 시유급식은 농수산부와 문교부가 남아도는 우유소비 방안으로 우유를 공장도 가격으로 국민학교에 공급하기 시작하면서 크게늘어 지난 9월 20일 현재에는 8 백 17개교 57만 2 천여 학생에게 공급되던것이 지금은 거의 중단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또 각가정에서 한 두병씩 받아 마시던 우유도 상당수가 10월 중순까지는 배달을 중지해 달라고 하고 있어 가정보급도 거의 절반정도로 줄어들었다.

이와같은 우유소비가격감은 가뜩이나 우유재고누적으로 도산지경에 있는 낙농업자들과 유가공업체를 더 곤경으로 몰아넣고 있다.

농수산부는 그러나 보사부가 우유를 콜레라의 매개체라고 밝힌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 우유가 콜레라의 매개체가 아니므로 계속해서 먹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농수산부는 첫소에서 짜낸 생유가 가공을 거쳐 시유가 되는 과정에서 모두 살균처리를 하고 밀봉된 상태에서 배달되기 때문에 그때 개체가 될 수 없으며 또 살균전에도 농장에서 생유를 섭씨 10° 상태로 냉각시켜 공장으로 옮겨오기 때문에 보통 20~30도에서 잘 번식하는 콜레라가 번식하기 힘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편 우유뿐만 아니라 생선류도 판매 소비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으나 10월 중순이후는 제대로 정상을 되찾을 것으로 보인다.



스 콜레라 만연으로 우유 소비가 격감하고 있다.

미국 양계산업 박람회 개최

매년 1월 미국의 양계 주산지인 조지아주에서 개최되는 세계 최대의 미국 양계산업전이 내년에도 1월 중순부터 개최된다.

여기에는 각종 기구를 비롯한 관련산업 모두가 출품되어 한눈에 세계 정상의 양계산업을 볼수 있으며 세미나도 겸하여 개최된다.

본회는 이 대회에 참석하는 회원의 여행편의 등을 협조할 예정이다.

(10월 15일까지 자세한 것은 본회 전화 22-6917로 문의 바람)

EC, 젖소두수감축정책 강행

— 우유과잉생산으로 전업 낙농가에 보상금지급 —



△ EC 회원국은 우유의 과잉생산으로 젖소 두 수의 감축정책을 강행하고 있다.

우유의 과잉생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EC회원국들은 77년 7월부터 낙농업을 포기하거나 쇠고기 생산으로 전환하는 농가에게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젖소 두수의 감소를 촉진시키는 정책을 쓰고 있다.

이같은 감축정책에도 불구하고 낙농업을 고수하고 있는 농가들이 계속 경영규모를 확대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난 79년 한해동안의 젖소감소율은 전년대비 0.3%에 그쳤다.

그러나 EC회원국들은 이와같은 보상금 지원제도를 81년 4월까지 계속 강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그때까지는 당초 목표인 1백 30만두의 젖소가 감소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79년 말 현재 EC 9개 회원국은 낙농가 1백 90만호에 2천 5백만두의 젖소를 보유, 같은해 년간 우유 생산량은 1억 8백 60만t에 달했다.

돼지값 계속 상승할듯

— 축진, 후반기 가격예측 —

정부의 비축돈육 방출에도 불구하고 돼지값은 계속올라 서울 마장동의 지육경락 가격이 한때는 kg당 2천원을 넘었고 9월

26일에도 1천 9백 67원으로 계속 2천 원 대를 육박하고 있다.

닭고기 값의 하락세와는 달리 축진에서 연말까지 예측한 가격도 당분간 계속상승 추세에 있어 양돈 농가의 출하기피 현상이 계속 되지 않을가 예상된다.

후반기 가격예측

구 분	80. 8 월	9 월	10 월	11 월	12 월
수요량(천 M/T)	17.9	21.9	21.3	21.9	25.5
공급량(천M/T)	16.1	15.4	14	12.7	12.4
예상 소매(원/정육 600g)	1,400	1,550		1,700 ±50	
가격 산지(원/생체90kg)	90,000	115,000		120,000 ±5,000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사무국 설치

— 축진, 통합따른 준비작업 —

축산진흥회(회장:김일로)는 축산업 협동조합중앙회 설립사무국을 설치, 업무를 시작했다.

이사무국은 정부의 농정개혁방안에 따라 농협에 속했던 3개사료공장, 축협 및 축산물 공판장, 한독목장등 축산관계기구를 흡수통합, 축협중앙회로 발족시키는데 따른 제반 준비작업을 하게된다.

설립사무국 국장에는 현 축진 이종민부회장이 임명되었으며 차장 2명과 법규제도반, 기구통합반, 심사정비반의 3개반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리소비 확대를 위한

간담회 개최

농촌 경제 연구원은 지난달 25일 동 회의실에서 15개 분야별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보리 소비를 주제로한 식량절약 및 식생활 개선을 범국민운동으로 전개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되었다.

이날 보리를 이용한 실용적 요리법 개발문제에 대한 중점 토론회 참석인사는 다음과 같다.

왕준련(한국 식생활 개발연구회장)

김성두(조선일보 논설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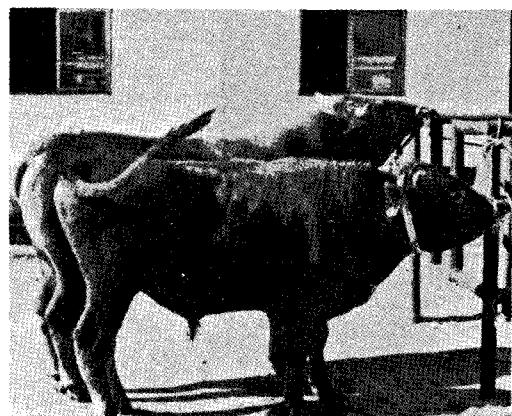
유태종(고려대 농대교수)

이종묵(대한 요식업 중앙회장)와 11명이다.

한우계통번식용 등록우에 보호자금확대

축산진흥회는 한우개량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 내년부터 한우계통번식용 등록우에 대한 보호자금을 확대지원할 것을 검토중이다.

축진의 이같은 검토는 지난해 가을부터 전국 각도에 1개군을 한우개량사업지구로 선정, 등록우로 지정된 4천두의 우량암소중 암송아지를 분만한 어미소에 대해 두당 15만 원, 암송아지 입식자금으로 두당 20만원씩을 보호자금으로 지원, 한우 계통번식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나 최근 양축농가의 계속된 자금난과 등록우 관리 및 개량사업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이중 약 15%에 해당하는 6백여두가 판매또는 등록 대치된데 따라 이를 예방키 위한 것이다.



△ 축산진흥회는 보다 효율적인 한우개량사업을 위해 번식용 등록우에 대한 보호자금을 확대 지원할 예정이다.

육가공 시설자금 융자 — 축진, 품질향상 설비현대화 위해 —



79년 GNP 6.4% 성장

— 한은, 79년 GNP 확정치 발표 —

지난 79년 국민총생산은 75년 불변시장가격으로 모두 14조 7천 5백91억 원에 달해 6.4%의 실질성장을 나타낸 것으로 밝혀졌다.

한은이 확정발표한 79년 국민총생산실적 추계에 따르면 년중 농림어업부문만 과실, 채소류등 일부 농수산물의 증산으로 전년에 비해 호조를 보였을뿐 광공업등 비농림어업부문은 대폭적인 유가인상과 제반안정화시책등으로 크게 부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이 집계 발표한 GNP성장을 6.4%는 지난해 잠정추계치 7.1%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농림어업부문서 과실, 채소, 양식등의 증산으로 당초 추계치 5.2%보다 1.5%가 높은 6.7%의 성장을 보인 반면, 비농림어업부문서 광공업, 제조업,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의 부진으로 추계치 7.5%

축산진흥회(회장: 김일로)는 육가공제품의 품질향상과 육가공업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시설증설자금 3억 5천만원을 업계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협진식품주식회사(대표: 함상우)에 융자키로 했다.

축산진흥회에 의하면 이번자금은 국내육가공업계에 처음으로 지원되는 것으로 햄·소시지·베이컨 등 육가공품제조 시설자금으로 축振은 앞으로 육가공제품의 품질향상과 시설현대화를 위해 필요한 업체에 자금을 계속 지원할 방침이다.

자금융자조건은 2년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연리 18.5%이다.

보다 1.2%가 줄어든 6.3%의 실질성장에 그쳤기 때문이다.

한우 등 간질병 예방

— 축진, 10만마리대상 검진사업실시 —

축산진흥회는 소의 간질증 예방 및 퇴치로 사육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 이달 한달동안 전국의 한우, 젖소, 육우등 총 10만두에 대한 소간질증검진과 구제사업을 펴기로 했다.

축진에 따르면 우리나라 한우, 젖소, 육우등 대부분의 소가 사양관리불량등으로 간질증이 만연, 비육이 안되고 산유량이 감소, 번식장애와 합병증을 유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축진은 각도별로 겸진 및 구제사업을 실시키로하고 특히 간질증의 분포가 많은 강변, 산간지역의 한우번식지대를 우선적으로 2세 이상의 한우, 젖소, 육우에 대해 간질증검진을 실시, 이중 병이든 소 3만두에 대해서는 비치놀등 구제약을 투여, 구제할 계획이다.

농수산통계 전산화

— 내년 7월부터, 1백 40여 출장소 TTS시설 —

농수산부의 오랜 숙원이었던 농수산통계의 전산화가 내년 7월부터 실시되게 되었다.

농수산부에 의하면 농수산통계의 전산화는 종래 우리나라의 농수산통계가 인력부족과 집계과정에서의 조작등으로 신빙성을 잃어왔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숙원사업이었다.

그동안 농수산부는 이 사업을 매년 추진해 왔으나 예산부족으로 뜻을 이루지 못했었는데 최근 관계부처와의 협의과정에서 3억 5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내년 7월부터는 각시군 단위에서의 각종 통계를 중앙에

서 수시로 집계할 수 있게되었다.

농수산부는 예산이 확보됨에 따라 내년 6월말까지 전국 1백 40여 출장소에 TTS 전송 장치시설을 갖추고 프로그램 등 필요 인력을 확보키로 했다.

이 시설이 완전히 갖추어지면 각종 통계는 종래에는 읍면에서 市, 郡을 거쳐 道 中央으로 연결되었으나 市郡에서 직접중앙으로 연결됨으로써 집계기간이 크게 단축되며 중간 과정에서의 조작도 거의 근절되어 정확한 통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 농수산통계의 신빙도를 높힐 것으로 보인다.

분유 적자수출 시도

— 재고량 누적 자금난 타개위해 —

올해 들어 계속 국내우유 소비가 침체함에 따라 분유의 재고량이 적정재고량의 7~8배에 까지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로 인해 유가공 업체들의 자금난은 한계에 이르므로 일부 유가공업체는 유대를 지불하지 못해 물의를 이르기도 하였으며, 일부에서는 유대의 일부를 전지분유로 대체 지급하기에 까지 이르렀다.

정부에서도 학교급식과 판매등을 비롯하여 자금지원등 각종 지원을 하고 있으나 분유재고량이 8월 말 현재 8천 2백 92톤에 까지 달해 유가공 업체들은 자유중국 파키스탄 등 동남아 시장에 수출을 적극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수출가격이 국내에서 kg 당 3천 5백원하는 전지분유가 FOB 8백원 선 정도이어서 수출이 지속적으로 실시 될지는 의문이다.



△ 분유 재고량이 누적됨에 따라 유가공업계는 적자수출을 시도하고 있다.

냉동시설허가제 폐지

— 수산청, 수산제조업기준개정 —

수산청은 지금까지 수산청장의 소요판단에 의해 시도지사가 허가해오던 냉동시설건립 규정을 완화, 설립을 희망하는 사람은 대한냉동협회 설계검토만 받으면 무제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수산청은 수산제조업의 허가기준등에 관한 규칙을 고쳐 이달부터 시행토록 했는데 냉동시설을 하고자 할때는 냉동업시설계획서 등을 사단법인 대한냉동협회에 제출, 기술 검토를 거치면 누구나 시설을 할 수 있게 됐다.

또 참치기지선 어획물에 대해서는 영하 45도 이하의 초저온시설을 하지 않고 일반어획

물과 마찬가지로 영하 20도 이하를 유지할수 있는 시설만 하도록 했다.



△ 수산청은 이제까지 실시해 오던 냉동시설 허가제를 폐지했다.

농가수지 크게 악화

— 농협, 생필품, 농약 등 양등 —

올들어 농촌생필품을 비롯 종자, 농기구값이 대폭 오른반면 꼬물류등 농가판매 가격이 낮은 상승율을 보임으로써 농가교역 조건이 지난 75년이래 최저수준인 89.1을 기록, 농가수지가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이 조사한 지난 6월말 현재 농가판매 가격지수는 237.3 (75년=100)으로 전년말에 비해 19.4%가 오른데 비해 농가 구입가격 지수는 266.2로 20.9%가 뛰어온 쪽 농가교역조건이 90에도 못미치는 89.1로 떨어졌다. 데 이는 물가지수가 재편된 지난 75년 이후 76년의 99.3, 77년 98.9, 78년 99.2, 79년 97.1에 비해 8~10.2포인트가 낮은 것이다.

농가수입가격을 살펴보면 올들어 종자류가 35.7%가 뛴것을 비롯, 농약류 25.6%, 농기

구 21.8%, 자재류 28.3%, 주거비, 광열비 식료품비가 20%이상 오른데 비해 농가판매가격은 백류가 전년말보다 오히려 0.7%가 떨어진데다 미곡이 10%의 낮은 상승을 나타냈다.

한우등 인공수정 확대

— 충청남도, 자연증식 수요못따라 —

충남도는 매년 급증하는 육류소비 수요에 따라 자연증식으로는 이에 따르지 못할 것으로 보고 한우, 육우등의 가축인공수정사업을 보다 확대추진해 나가도록 각시군 및 축협에 지시했다.

도 축정당국은 이 지시에서 금년도 한우와 육우인공수정사업은 목표이상으로 적극추진하고 양돈불황으로 제한했던 쇄지에 대한 인공수정을 재개, 도서벽지에 대해서는 수정소지소설치 운영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우유수매 융자금 상환연장

— 축진, 판매부진, 경영악화따라 —

축산진흥회는 최근 유가공업체의 경영난을 돋기위해 우유수매자금융자금을 지원했는데도 아직도 업계가 우유판매부진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점을 감안, 금년 8월말까지 상환토록 되어있는 융자금 상환기간을 10개월연장, 내년 6월까지 상환토록 했다.

이같은 조치는 지난 5월 연리 18.5% 의 융자금을 금년 8월말까지 상환키로하고 매

일, 해태, 남양, 삼주유업과 서울, 부산 우유협동조합등에 모두 45억 4백만원을 지원했으나 최근 유가공업체가 체화로 인한 심각한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어 이를 덜어주기 위해 취한 것이다.

축진은 그동안 유가공업체가 소비둔화에 따른 유제품체화 현상으로 原乳를 낙농가로부터 집유하고도 그 대금을 줄수 없는 경영난을 겪게됨에따라 이를 지원키 위해 자체자원자금 18억 9천 4백만원과 농협의 26억 1천만원등 모두 45억 4백만원을 융자지원 한바 있다.

농업기술개발 지원

— 농수산부, 내년 1 억 5 천만원 —

농수산부는 농업기술개발을 위한 조사, 연구사업과 농업기술훈련 및 보급을 위한 지도사업 그리고 농업 기술개발촉진을 위한 학술활동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키위해 1 억 5 천 7백 50만원의 자금을 농촌진흥기관, 농과계학교 및 농업단체등에 지원키로 했다.

농수산부가 마련한 내년도 농업산학협동기금운용계획에 따르면 이미 조성된 산학협동기금 5억원에 대한 과실수입금 1 억 5 천 7백 50만원을 내년 1 월부터 지급키로 했는데 부문별 지원내용을 보면 농업기술개발을 위한 조사연구사업에 8 천만원, 기술보급을 위한 지도사업에 2 천 5 백만원, 학술 활동 지원에 1 천만원, 내병성신품종육성 및 재해대책 긴급연구비에 3 천 2 백만원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우, 샤로레교잡우 몸무게

86.8% 더 늘어

— 농진청 평가회에서 밝혀 —

한우와 프랑스산 「샤로레」의 교잡종의 소의 몸무게가 같은나이의 한우보다 훨씬 많아 비육우사육농가에 반가운 소식을 안겨주고 있다.

농촌진흥청이 경기도 강화에서 개최한 한우와 「샤로레」교잡우 시범사업 평가회에서 7 백 81농가가 출품한 1 천 21마리중 15개월짜리 교잡우의 몸무게가 5 백 65kg으로 같은 나이의 한우보다 68. 6 %나 더 무거웠다. 이같은 중체요인은 교잡우는 발육이 빠르고 석욕이 왕성해 거친 먹이도 잘 먹기때문이다. 농진청은 72년부터 한우와 「샤로레」 교잡사업을 실시, 강화, 김포지구 1 백 50 여농가에서 「샤로레」교잡우를 질러왔다. 농진청은 이번 교잡우 시범사업 성공결과를 기초로 내년부터 전국 73개 지역에다 2 만마리의 교잡우를 확대 생산할 예정이다.

농산물수입 크게 늘어

— 7월 말 현재 6억6천7백만불 —

자본재수입은 줄고 있는 반면 농산물수입이 크게 늘고 있다.

상공부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현재 쌀을 비롯한 양곡이 6억 6천 7백 30만불어치 수입돼 올해 수입계획의 56%가 수입되었는데 이는 지난 78년 한해동안 수입한 금액을 이미 넘어섰으며 작년수입의 70%에 달하는 수치인 것이다.

품목별로는 쌀이 1억 6천여만불로 양곡 전체수입의 24%였고 소맥은 30.2%인 2억 1백 44만불, 옥수수와 사료가 31%로 2억 7백 18만불, 대두 8천 9백 4만불(13.3%), 잡곡(팥, 녹두) 9백 55만불(1.5%) 등이다.

지난 5년간의 양곡수입 추이를 보면 지난 해부터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늘기 시작하고 있는데 금액과 총수입에서의 비중은 다음과 같다.

△ 75년 105.395천불 (9.7%)

- △ 76년 497.275천불 (5.7%)
- △ 77년 538.935천불 (5.0%)
- △ 78년 577.305천불 (3.9%)
- △ 79년 962.331천불 (4.7%)
- △ 80년 계획 1.195.760천불



△ 자본재 수입은 주는데 비해 농산물 수입은 크게 늘고 있다.

식육유통지도 감독 소홀

— 백화점, 슈퍼등 가격 멋대로 조작 —

쇠고기 및 돼지고기등 식육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수의직공무원의 부족으로 식육유통과정을 제대로 단속하지 못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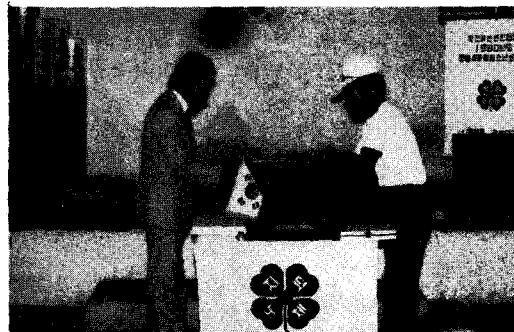
백화점이나 슈퍼마켓의 경우 쇠고기등을 부위별로 판매한다는 구실로 일반정육점에 비해 3~4배씩이나 폭리를 취하고 있어도 지도감독책임을 맡고 있는 각구청 위생과에

서는 수의직공무원의 절대수가 부족하여 행정직공무원이 지도단속을 함으로써 제대로 시정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백화점, 슈퍼등에서는 소비자들의 주문에 부응한다는 구실로 쇠고기를 안심, 등심, 양지머리, 토시살, 대퇴부등 부위별로 판매하고 있으나 일반 소비자들 역시 쇠고기부위에 대한식견이 약아 이로인해 엉뚱한 손해까지 입는 사례마저 늘어나고 있는데 전혀 시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

중앙약품, 농촌 청소년회와 자매결연

— 지역사회 발전위해
축산장려운동 지원 —



중앙약품공업사(대표: 김무진)는 농촌 지역사회 발전과 일하는 새마을 청년운동을 적극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경기도 강화군 강화읍 국화새마을 청소년회(회장: 노봉균)와 자매결연식을 거행했다.

동사는 앞으로 지역에 축산장려운동지원과 식수운동, 농촌청소년 문고 지원사업등을 지원하고 지역의 닭·돼지·소등 가축에 년2회 기생충 구제사업, 가축사양기술강좌, 질병예방기술강좌, 가축질병방역사업과 식목일과 육림일에 식수지원 이외 새마을 청소년회가 요청하는 사업을 수시로 전개할 예정이다.

농수산부인사



(송찬원)

국립동물검역소 소장: 송찬원 (전국보위)

축산과 축산과장: 김동태 (전 시장과장)

축산과 낙농과장: 이기복
(전 가공이용과장)

축산과 가공이용과장: 이인형
(전 낙농과장직무대리)



(김동태)



(이기복)

축산과 가축위생과장: 김범례
(전 동물검역소 서울지소장)

동물검역소 서울지소장: 이창립
(전 가축위생과장)



(이인형)



(이창립)

축산과 중소가축계장: 서기상

(전 자급사료계장)

축산과 대가축계장: 김기준(전 가공계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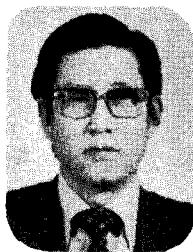
축산과 기획계장: 백현기(전 시장과)

낙농과 낙농계장: 김현
(전 대가축계장)

사료과 유통계장 : 이상필
(전 수산통계담당관실)
가공이용과 축산물수급제장 : 이연무 (전 유통계장)
가공이용과 단속제장 : 김경희 (전 수의계장)
가축위생과 수의계장 : 이갑일 (전 검사계장)

업계 단신

- 김춘수 (KIST 부소장, 전 양계협회 이사, 월간양계 편집위원) : KIST 소장 공석으로 소장직무대리
- 오진양행 (대표 : 정진국) : 최근 국내시장에서 각광받고 있는 Henny Penny 사의 주방기기 전시회를 10월 9일부터 우이동에서 개최할 예정. 더욱 자세한 것은 오진양행 (☎ 778-0474)으로 문의할 것.



(정진국)

- 유로산업 : 플라스틱 병아리상자에 이어
플라스틱 병아리모이상자를 개발 시판중 연락처 ☎ 603-0507
- 새마을청소년 농협특채 : 농협중앙회는
영농후계자 육성을 위해 81년부터 농협 채용
인원중 10%를 우수새마을 청소년을 면접전용
특채할 예정이다.

○ <주> 한국고킹(대표 : 이수영) : 비타민제 판토닉 가용산을 지난 8월초 대만에 5천 \$ 상당을 수출한 이후 매월 2t 이상씩 을 수출하고 있으며 이밖의 사료첨가제 수출을 곧 시도할 예정이다. 한편 동사의 모회사인 동양화학에서는 매월 200t의 인산칼슘을 외국에 수출하고 있다.

○ 롯데축산<주> : 현대식 육가공 생산시설을 완공 충북 청주시 송정동 제 3공단 대지 1만평에 1억 20억을 투입 9월 15일부터 제품출하를 시작 하루 28t의 생산능력보유

○ 해외가공수산물 전시회 : 대한무역진흥공사가 주최한 해외 가공수산물 전시회가 9월 9일부터 10월 23일까지 서울 및 6개 도시에서 개최, 전시회에는 영국, 일본등 11개국의 8백 6점의 가공품 및 국내제품이 전시.

○ 제 2 회 전국농산물품평회개최 예정 : 농업기술자협회(총재 : 류달영)는 <주> 코스모스 백화점(대표 : 정규성)과 공동주최로 오는 12월 2일부터 제 2회 전국 농산물 품평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함께 제 21회 전국농업기술자대회도 갖을 예정이다. 품평회 출품 신청마감은 10월 20일 까지이며 자세한 것은 전국농업기술자 협회 (☎ 445-1009)로 문의 하면 된다.

○ 홍진양행(대표 : 한휘언, 김종웅) : 사세확장에 따라 사무실 이전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89-2 (피어선빌딩 별관 606호) ☎ 74-7850

○ 제일약품<주> : 동물약품부 개설로 수의사 송용환(서울수의대졸)씨를 기용.